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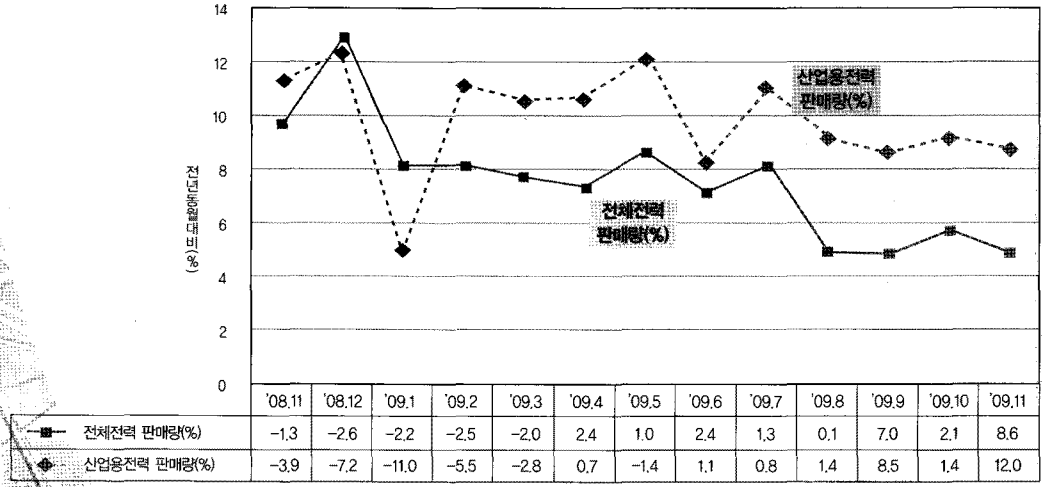
일반용 및 주택용 전력판매량, 보합세

일반용 0.3%감소, 주택용 0.4%증가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(02-2110-4666)

- 지식경제부에 따르면, 7월 일반용과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
 - 잦은 비로 인한 기온하락과 냉방수요 감소,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홍보·참여 등으로 주택용은 전년동월대비 0.4% 소폭 증가하였으며, 일반용은 0.3% 감소
 - * 주택용 : ('10.7월) 50.70억kWh→('11.7월) 50.91억kWh(+0.4%)
 - * 일반용 : ('10.7월) 84.68억kWh→('11.7월) 84.43억kWh(Δ0.3%)
 - * 교육용 : ('10.7월) 6.14억kWh→('11.7월) 6.02억kWh(Δ2.0%)
 - * 월 평균기온(전력수요예측에 적용되는 5대도시) : ('10.7월) 25.8℃→('11.7월) 25.2℃ (Δ0.6℃)
- 전체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4.9% 증가한 373억kWh를 기록함
 - * 전체 판매량 : ('10.7월) 355.51억kWh → ('11.7월) 372.97억kWh (+4.9%)
 - 일반용(Δ0.3%)과 교육용(Δ2.0%) 전력의 감소 요인은 있었으나, 수출호조(전년동월대비 27.3%↑)에 따른 산업용이 216억kWh로 전년동월대비 8.7% 증가한 것에 기인
 - * 산업용 : ('10.7월) 198.56억kWh→('11.7월) 215.81억kWh(8.7%)
- 산업용 판매량은 화학제품(16.7%), 기계장비(16.3%), 철강(14.2%)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임
 - * 업종별 증감률(%) : 화학제품 16.7, 기계장비 16.3, 철강 14.2, 석유정제 13.9, 자동차 10.4, 반도체 7.9, 펄프종이 6.9, 조립금속 5.6, 조선 5.5, 섬유 1.8

< 전체 및 산업용 전력판매량 증감율 >



*산업용 전력 : 광업,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적용

■ 한편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*(SMP)도 전년동월대비 상승

* 계통한계가격(SMP : System Marginal Price) :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의 한계발전 변동비를 보상하는 가격

◎ 계통한계가격(SMP)은 119.50원/kWh로 주요연료 열량단가 상승 및 전력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.4% 상승

* 평균전력수요 : ('10.7월) 5,387.9만kW → ('11.7월) 5,617.0만kW(+4.3%)

* LNG열량단가(원/Gcal) : ('10.7월) 60,843 → ('11.7월) 69,159(+13.67%)

* 유류열량단가(원/Gcal) : ('10.7월) 70,133 → ('11.7월) 93,375(+33.14%)

〈 계통한계가격(SMP) 변동 〉

(단위: 원/kWh, %)

구 분	2011년			2010년	
	6월	7월	1~7월	7월	1~7월
SMP	119.84(4.4)	119.50(4.4)	122.35(3.8)	114.51(72.5)	117.89(3.4)

* ()는 전년동월(기) 대비 증감률(%)

◎ 7월 최대전력수요는 7,139.3만kW(7.19(화)15시)로 전년동월대비 5.6%증가하였으며, 전력공급능력은 7,883.8만 kW로서 공급예비력(율)은 744.5만kW(10.4%)이었음

전기차 대중화 3년 앞당긴다

- '14년부터 강하고, 멀리가고, 싼 준중형급 전기차 양산 -
- R&D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한 중소기업에게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(02-2110-5635)

■ 지식경제부는 작년에 발표한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('10.12월)*에서 약속한 녹색산업인 준중형 전기차 개발을 위해 금년 7월말 협약 후 8월부터 본격 착수를 시작했다고 밝힘

* EV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'17년 양산계획을 3년 단축, '14년에 조기 생산체제 구축, 정부지원금만 약 700억원, 민간펀드 투입시 1,000억원 이상

◎ 이번 프로젝트는 '10.12월에 과제기획 대상업체를 선정 후 국내 완성차를 비롯한 부품업체 컨소시엄*이 불꽃경쟁을 벌인 결과 최종 선정된 현대차 컨소시엄(총 44개 기관)이 이번 개발을 이끌게 되었음

* 현대차, 한국GM, 르노삼성, 쌍용차 컨소시엄

-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낮은 성능과 비싼 가격을 해결하는데 있음
 - '10년 'BlueOn' 이 전기차 생산기술을 입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, 동 프로젝트는 전기차 핵심부품* 성능개선을 통해 가솔린차와 같이 운전자가 불편없이 운행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
 - * 5대 핵심부품 : 모터, 공조, 차량경량화, 배터리, 충전기

〈 BlueOn, نيسان 리프와 준중형급 전기차 성능비교 〉

구 분	BlueOn	نيسان 리프	준중형급 전기차
1회 충전 주행거리(km)	140	160	200이상
완속/급속 충전시간(시간/분)	6/25	7/30	5/23이하
배터리용량(kWh)	16.4	24	27
최고속도(km/h)	130	140	145

* 배터리 용량이 BlueOn 대비 10.6kwh가 많지만 충전시간을 대폭 감소

- 금번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현재 시판되는 주요 전기차(닛산 리프 등) 보다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

- 또한, 가솔린차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판단, 전기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,
 - 첫째, 과제선정 당시 각 컨소시엄에서 중소기업 참여가 많을수록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
 - 둘째, 이번 프로젝트에는 현재까지 R&D과제에서 취득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총괄 주관기관만 소유하던 원칙에서 해당 기술을 개발한 부품기업들이 소유토록 하는 규정이 적용됨

■ 또한,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전기차 로드맵에 따른 조치로 선정된 현대차 컨소시엄뿐 아니라, 국내 타 완성차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전기차 관련 투자를 유도해 국내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힘을 조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

- 과제기획에 참여했던 르노삼성, 한국GM, 쌍용차 컨소시엄들도 기획(안)에 따라 적극적인 전기차 개발과 투자 계획을 밝힘

〈 업계 투자 계획 〉

업체	투자계획
현대기아	• 공공기관 보급용 'BlueOn(현대)' 에 대한 양산설비를 구축했으며, 경CUV(기아)에 대한 전기차 양산라인을 신설할 예정 * '11년 250대 생산, 서산산업단지에 생산라인을 신설하여 경CUV를 '11.12월부터 생산 예정
한국GM	• 전기차 3종 개발* 및 양산라인 신설 집중 투자 계획 * 스파크(구 마티즈), 크루즈(구 라세티), 올란도
르노삼성	• 부산공장에 전기차 양산라인 신설 예정(SM3급 인 플루언스) * '11년 100대, '15년까지 13,000대를 생산할 계획
쌍용차	• SUV 전기차 개발을 착수하여 R&D에 집중 투자 중

■ 전기차 및 핵심부품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자동차 4강, 그린카 3강 도약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예정

*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 발표 시 비전 : 「'15년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」

- 또한, 국민들의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부담심화,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국내의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로 급속히 대체해 나가면서 자동차 시장과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 됨

LED가 녹색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한다

- '10년 LED 수출국 진입 및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으로 도약 -
- 교통신호등 90%이상 LED로 교체하고 공공기관 백열전구 99% 퇴출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(02-2110-3943)

- 지식경제부는 2008년 이후 정부의 LED산업 육성·보급정책 추진에 힘입어 LED조명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ED조명이 녹색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음
 - ◎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LED산업에 뛰어 들었으나, 적극적 정책추진과 업계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단기간에 LED 산업 주요국으로 부상
 - '09년 세계최초 LED TV 상용화 이후 LED산업이 급팽창하여 '10년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으로 발돋움 하였으며, '10년 LED분야 무역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었음
 - * LED소자 생산순위 : ('08) 5위 → ('09) 4위 → ('10) 2위
 - * 국내기업 매출(조원) : ('07) 2.2 → ('08) 2.4 → ('09) 3.1 → ('10) 6.9
 - * LED무역수지(억불) : ('07) -1.59 → ('08) -1.54 → ('09) -1.72 → ('10) 4.14
 - 또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기업이 LED산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
 - * LED업체수(개) : ('07) 295 → ('09) 781 → ('10) 834
 - * 분야별 기업비중('10, %) : (부품소재) 9.8, (소자) 7.2, (조명·응용) 76, (장비) 7.0
 - ◎ 국내 LED조명 보급률은 '07년 1%미만에서 '10년에는 2.5%까지 확대
 - LED조명 초기 시장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(지방공기업 포함) 14%, 공공기관 8% LED조명 보급률을 달성하였음
 - * LED조명 보급률(10년말 기준, %) : 국가전체 2.5, 지자체 14, 공공기관 8
- 그간 정부가 LED산업 발전전략('08.5, '11.5),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('11.6) 등을 통해 추진해온 LED산업육성 및 LED조명보급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 - ① LED분야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
 - ◎ 위기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단기상용화가 가능한 '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'를 '09년 추경으로 추진하였으며, LED분야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중요한 성과를 달성
 - ◎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LED 제조용 MOCVD 장비 및 차량용 LED 전조등의 핵심부품, 빛조절(dimming)가능 LED 가로조명용 LED칩/패키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함
 - 6개의 과제가 납품계약에 성공하였으며, 투자 및 고용실적이 당초계획을 초과(투자: 167%, 10,621억원/ 고용: 178%, 2915명)
 - ② LED조명 보급 확산 가속화
 - ◎ '10년 말 기준으로 기존 교통신호등의 경우 90%이상 LED교통신호등으로 교체*하였으며, 공공기관의 백열전 구도 99%이상 LED로 교체**하는 성과를 거두었음
 - * LED교통신호등 보급률(%) : ('07) 45 → ('09) 90.1
 - ** 지자체 LED조명 교체에 '08년~'10년까지 659억원 지원, '09년에 추경예산 30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부처 소속기관 백열전구 집중 교체
 - ◎ '09년부터 민간부문에 LED조명 설치 장려금을 지원하여 LED조명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

- '10년부터 전력 소모가 많은 백열전구*의 수요가 많으나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양계장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민층의 전력에너지비용 절감을 유도

* 저효율 백열전구의 경우 '14.1.1일부터 생산·판매를 금지하여 퇴출할 계획

- '11년부터 전통시장(100억원), 소상공인 광고간판(80억원)을 대상으로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중

* 금년도에는 점포 총면적 300㎡이하인 소매점포가 많은 상가건물의 15,000개 간판 우선 지원 예정

○ '10년부터 ESCO사업을 통해 민간 건물에 LED조명 설치시 저리용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, LED조명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조특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LED조명 설치시 세제지원(투자금액의 10% 세액공제)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

* ESCO사업 지원 실적(억원) : ('10) 34.9 → ('11.7) 40.2

③ 다양한 고부가가치 新시장을 창출할 LED융합산업 기반구축

○ 현재 LED산업은 휴대폰, TV등 BLU(Back Light Unit)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, '12년부터 조명시장이 본격화되고 '13년 이후 다양한 융합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

○ 자동차, 의료·환경(UV LED),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고부가가치 융합 新시장 저변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산업과 연계한 지역별 LED융합지원센터 구축

〈 지역별 LED융합산업화 지원센터 개요 〉

구분	기반 산업	융합 분야
수도권	가전, 일반조명	지능형 LED조명, 스마트 LED도로조명 시스템
대경권	자동차, 휴대폰, 디스플레이	대형 LCD TV용 BLU, 자동차용 LED조명
호남권	농생명	LED-IT 식물공장 개발
동남권	수산, 해양, 조선	선박용 LED조명 개발, 수산양식용 LED특수조명 개발

④ LED산업육성과 보급촉진을 위한 표준·인증 대상 확대

○ 고효율 LED조명 보급확산 및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을 '07년 2개 품목에서 '10년 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, 금년에는 LED가로등, LED투광등, LED터널등 등 3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

* 고효율 인증 품목 : LED교통신호등, LED유도등, 컨버터내장형 LED램프, 컨버터외장형 LED램프,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등

* 매입·고정형 LED등기구 인증 기업수 : ('09) 1개 → ('10) 85개 → ('11.7) 150개

○ LED조명 관련 KS 14종을 제정하였으며, 금년내에 3종을 추가할 예정

* KS인증 품목 : 컨버터내장형 LED램프, 매입형 및 고정형 LED램프 등

* '11년 하반기 제정 품목 : LED터널등기구, LED도로표지등, 지중매입등

■ 지경부는 금년 상반기에 발표한 “LED산업 제2도약 전략”과 “LED조명 2060계획”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력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LED조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

○ 선진국에 이를 위해, 내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LED조명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,

- 지하철,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민간 수요처에 ESCO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유도

○ 선진국에 아울러, 전체 조명 수요의 26%인 개별 소비자들의 LED조명 수요 확산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LED탄 소개쉬백 프로그램(20억원)을 시범운영하여 일반 가정용 LED조명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

○ 선진국에 이와 함께, LED산업 역량결집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·학·연·관 소통의 장으로서 민간 주도의 ‘LED산업포럼’*을 운영해 나갈 계획

* LED 산업포럼 실무 준비단을 설립·운영 중 ('11.7월~)